큰스님 수행한담

즐거움은 커져요”

◇1952년 대각사에서 경월스님, 석봉스님(태고종 경남교육원장) 등과 함께 수련법회를 마치고 (뒤에서 두 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영월스님)

“상황이나 여건 탓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공부의 첫걸음이자 바른길”

데 나는 뭐든 외우길 잘해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단체기합을 받을때 노스님께서 매를 들고 야단을 치셔도 나한테만큼은 잘 외우니 참 기특하다고 아껴주셨을 정도입니다. 그러시면서도 내가 하도 산으로 들로 나다니며 노래부르기를 즐기니까 “야 이놈아, 너는 노래나 부르지 가까운 통도사, 범어사를 두고 멀리 이 절까지는 왜 왔냐?”고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철도 없었지, 곧바로 노스님께 “가까운 절 두고 전라도 절까지 온 것은 과거에 인연이 있었겠지요”하고 답한 겁니다. 이 답에 노스님께서는 오히려 기특해 하시더군요. 인연이라는 단어까지 쓰는 철부지가 맘에 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귀염을 받으면서 절에 있었건만, 어린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마음이 절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차츰 희미해져 버리고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처님과의 인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재물과 색 탐하면 자연히 相을 냅니다

삼독 질겨도 마음 닦으면 물리칠 힘 생겨

십대 후반, 범어사 선방에 들어갔는데 스님이 된 것에 회의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마음이 역력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즈음 우연히 속가의 외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초발심자경문〉을 읽고 계시더군요. 가만히 들어보니, 서당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접장이셨던 외할아버지셨지만 풀이하는 초발심자경문에 틀린 곳이 많았습니다. 조용히 방안으로 들어가 강사스님께 배운 대로 바로 잡아 드렸지요. 그러자 외할아버지는 무척 놀라시면서 “참 네가 바른 공부를 했구나”하시고는 “불교가 이렇게 깊고 좋은 공부였구나”하시며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배우라고 적극 권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흔들리던 신심이 가닥을 잡아가더라구요. 그리고는 불교공부가 재미있어져서 또 한번 발심정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은적사에서 보광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나 어영부영 지내다 와버려서 정식으로는 범어사에 와서 몽산스님을 은사로 동산스님에게서 보살계와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금산사, 범어사 통도사 선방을 다니며 참선 수행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잊지못하는 것은 김해 무척산에서 7일간 용맹정진을 할때입니다. 도반 8명이 같이 주력을 했는데 물만 한 그릇 떠놓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오로지 앉아 주력만을 계속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그렇게 며칠을 계속하자 캄캄한 방안인데도 눈이 환하게 밝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저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했는데 그것을 공부과정이라고 생각한 나는 적어놓기로 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서 글을 적어도 밝은 곳에서 적은 것보다 더욱 똑바르게 써졌습니다. 한번은 주력을 하고 있는데 20리쯤 떨어진 고향마을이 보이고 아버지가 모내기를 하고 있더군요. 모내기를 할 때 새끼줄을 치고 참나무, 솔가지를 꽂는 것이 보이구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보기 위해 적어놨었지요. 그리고 7일 공부를 마치고 고향에 가서 아버지께 확인을 해보니 공부중에 보이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공부가 한참 재미있을 때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고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가 좋으니 어쩌니 해도 공부하는 재미만한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공부한 것을 동산스님과 경봉스님께 질문을 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경봉스님께서는 내가 절을 짓는다 하니 법해사라는 절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을 바다와 같이 널리 퍼지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탱화를 하는 석정 스님이 김해포교당에 와 있을때 경봉스님께서 법문을 하러 오셔서 일주일동안 머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시봉을 해드렸거든요. 음식도 스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잘 보아 두었다가 하루도 중복되지 않게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잘 알아서 해주느냐”고 칭찬을 해주며 글을 써주시기도 했습니다. 스님께서 음식을 드시는 것을 지켜보고 한 젓가락이라도 더 드신 것을 돌아가면서 해드렸거든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시봉하니 어른께서도 그 마음을 알아주신 것이지요. 가능한 스님곁에 붙어 공부한 내용을 참 열심히 여쭈었습니다. 스님께서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잊지못할 큰스님으로 수좌들을 아주 잘 지도해 주시기로 정평이난 동산스님은 상좌를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포로수용소에서 풀려 나온 이들이 스님 밑으로 출가를 많이 했거든요. 주위에서 스님께 “그렇게 무턱대고 출가를 받아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드리면, 스님께서는 “학이 천 마리면 봉이 한 마리는 나온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때는 전쟁직후라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식량도 배급을 받아 먹었습니다. 보리쌀과 쌀을 조금씩 배급받아 넘치는 대중이 나누어 먹자니 항상 부족했지요.

내 소임이 별좌라 유과나 강정등을 만드는 소임이지만 당시는 동래포교당에 가서 배급을 받아오곤 했었어요. 그 당시 선방에는 성수스님, 경우스님, 홍법스님 등이 같이 있었고 얼마전 입적한 광덕스님이 ‘고처사’로 불리며 함께 공부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 함께 공부했던 스님네들이 이제 대부분 열반했으니 세월이 무상할 뿐이죠.

공부를 꾸준히 해도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부인데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지요. 공부를 할 때 달콤한 음식에 맛을 들이듯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든 참선이든 지극하게만 하면 되게 되어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꽃 중에서 왜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 되었겠습니까?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진흙은 묻지 않고 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는 말하자면 연꽃이 물밑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공부의 단계 단계를 거쳐 공부를 해서 견성성불을 해야 합니다. 견성 성불은 물속에 있던 중생이 물 밖을 내다보는 것 즉, 연꽃이 물 밖에서 피어난 경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연꽃이 물 밖으로 나와서 피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연밥이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경지인 것입니다. 귀하고 귀한 불법의 인연을 만났으니 연꽃을 피우는 노력을 기울여 해탈해야 합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한 길 수

〈(주)제일약품 감사〉

‘평상심이 바로 道’ 삶의 좌우명

받으려는 마음을 주는 마음으로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그래, 평상심이 바로 도라고 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많은 것을 일깨우는 이 가르침을 나는 참으로 오랫동안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다.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는 마음으로 바꾸고, 남을 불편하게 하기 보다는 편안함을 주고, 푹 익은 과일처럼 성숙된 여인이 되어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밖으로 갈구하는 마음을 가능한 안으로 거둬 헐떡임을 쉬게 하여 늘 나를 맑히고 밝히는 것이 바로 나의 평상심이고 이것이 또한 나의 길, 도(道)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온 것이다.

사실 출가 스님들처럼 수도에만 전념할 수 없는 재가자의 생활이 아니던가.

〈금강경〉〈원각경〉〈법화경〉을 공부하고 사경하며, 또 손길 닿는 대로 크고 작은 단체를 통해 봉사활동도 하면서 나의 아만과 이기심을 줄여가고자 노력한 시간으로 치면 수십년을 헤아리지만, 언제나 나는 늘 불교 초심자이다. 그럼에도 부처님과의 인연은 과거 오랜 전생부터였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나는 친가 외가 모두 독실한 불교집안이라는 인연에 너무 감사한다. 그덕분에 어린시절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논두렁도 지나고 흙먼지도 쓰고 들꽃들도 보면서 절에 올랐다. 개울물이 불어 허리까지 물에 잠길 때도 좋아하고 노래까지 부르며 건너서 절에 다달았던 것이다.

또 절에 불사가 있을 때면 온 동네를 화주하러 다니시는 할머니를 따라다녔다.

그때는 주로 시주물이 쌀이었는데, 할머니는 당신이 직접 다니시며 화주를 하셨던 것이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그 지극한 신심은 서예가이셨던 어머님(불명 자안심)과 사업가인 아버님(불명 고봉)에게로 이어졌다. 특히 어머니는 친정서 길러진 신심에 시댁 불심까지 합쳐져 참으로 큰 보살이셨다. 어머니는 생일이나 제사 등 특별한 집안일에는 절에서 불공을 드렸고, 나를 꼭 데리고 가셨다. 그때는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게 참 힘들고 벅찼지만 〈천수경〉 독경 소리에 아침 잠을 깼던 것은 내 신심의 뿌리처럼 여겨진다.

그래서인지 나는 불교가 그저 나의 숨결처럼 느껴지고 부처님도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손만 내밀면 바로 닿을 수 있다고 믿는다.

“부처님, 오늘 한 이 일은 잘 한 일이지요?” “부처님, 이건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부처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에게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적 부처님께 그랬듯이 어리광쟁이도 되고 떼쟁이도 되어 하루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나면 왜 그리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지…. 이렇게 늘 자기전에 앉아서 부처님과 대화를 나눈다.

또 내가 즐겨하는 등산을 가서도 〈예불문〉과 〈반야심경〉〈천수경〉 등 내가 외울 수 있는 모든 경전들을 소리내어 외운다. 그리고는 “나무 바위 새 풀벌레 다람쥐 등 삼라만상 모든 산천초목들까지도 이 소리 들으시고 성불하여지이다”고 발원한다. 어떤 이는 묵례하고, 어떤 이는 싱긋이 웃고, 어떤 이는 합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소리내어 “감사합니다” 한다. 모두가 아름다운 마음들이다. 스치는 바람소리, 흐르는 물소리, 허공 중의 구름을 보면서도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라면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 조용히 미소지을 수 있지 않을까. 부처님께서 한 송이 꽃을 들어보이자 당신의 제자 가섭이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 염화미소·이신전심,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우리들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불교의 생활화 지성화를 간절히 서원한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가을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그리움의 계절인가.

잔잔하게
부서진 파도는
은빛노을 속으로
가을을 안고 온다.

솜털 구름처럼
하얗게 피어오르는
여린
갈대숲 사이로

가득히 밀려오는
그리움 하나
그대의
투명한 눈망울이

가슴으로 와
보고픔은
그리움으로 남는다.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5호 탑골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뒷편 효원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2275-5592~3
핸드폰 : 018-277-5592

영남불교대학

통신과정 · 인터넷과정 모집

포교사 배출기관 (조계종8호)

♣ 정규과정 한학기 3천명이 모이는 기적의 교육도량!
♣ 그 생생한 소리를 멀리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과 교계큰스님(자광스님, 박삼중스님, 무비스님 등)이 펼치는 명강의를 만나십시오..
♣ 1년 수료 후 졸업장을 드립니다.

교 과 목

■ 기본과정 - 불교학개론, 예불 ,반야심경
■ 고급과정(선택)
천수경, 금강경, 원각경, 계초심학인문, 지장경, 법화경, 발심수행장, 화엄경, 법성게, 육조단경, 인도불교문화사
■ 전화로도 신청 가능

영 남 불 교 대 학
053)474-8228
(http://www. cyberbuddha.or.kr)

새천년의 지도자가 될 大道眞人과 전통육경신 道通기도 및 동양철학 秘法 건강·수명·재산·운명 관리법 특강

양 11월 3일 해시부터 4일 해시까지 양일간 육경신 도통기도와 특수동양철학 특강으로 도통군자·사명자·예술가·서예가·철학가·신명가·전문상담가·도인지망생·직장인·명퇴자·포교사·지도자·상담인들에게 천장지비의 본뜻과 본인외기도로 직접 삼라만상을 통섭하는 고차원적인 기도와 학문으로써 경신기도 입문자들에게 하늘의 권능를 기도로 통하는 날인고로, 삼라만상 모든이치는 근본철학에 있고 15진주 사만다 사구계의 근본철학을 모르면 도를 통할수 없는고로, 육경신도통 수행근본인 천안통·천리통·타심통·신족통·숙명통·루진통을 통섭하는 경신기도에 입문하시여 상통천문 하달지리로 인사명치 대우주의 비밀장를 열어 모든마장를 항복받고 전생 금생 내생의 윤회생사 해탈법으로 새천년의 태양을 맞는 사명자상으로써 만중생 제도하시는 약사대 미륵부처님의 후천증상운의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입 제 : 11월 3일 亥시부터 4일 亥시까지 양일간
●회 비 : 1박2일, 침식제공, 일금 5만원 간편한옷차림
●온라인 : 농협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전 화 : 02)821-6622/야 923-3110 016)239-3110

太日宮.육경신도통회본원
대한역학풍수지리 학술원
대 한 불 교 약 사 선 원

天龍眞人
泰日法師

졸 탁 동 시

용맹정진 업장소멸 오직 이 길뿐!

◈철야용맹정진. 불자기본수행법교육 : 매주토요일 저녁 7시에서 일요일 아침 7시까지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헐덕대지 않으며 힘들지 않고 저절로 숫자 헤아려지는 완벽한 방법
◈석가모니불 염불법 : 자동으로 염불이 이어져 빠른 시일에 염불삼매 이루어 화두 참선할 수 있는 상근기 되는법
◈한글 금강경 봉독법 :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율로 힘차고 박력있고 리드미컬하며 신명나는 독경으로 중단전 챠크라가 열려 감정통제가 자유로워지며 가슴에 맺힌 한이 홧병이 절로 녹는 신심이 절로 나는 법
◈와선 호흡법(1,2) 행선염불, 선체조 도인건강법(33) : 상기되어 피곤하고 머리 무겁고 열나며 침은 마르고 입술 타며 눈은 충혈되고 손, 발, 배, 허리, 무릎 차거워도 30분 정도 수행하면 쉽게 극복되는 심신건강법
◈업장소멸용맹정진. 특별소원성취기도 : 하루종일 쉬지 않고 호흡에 맞춰 절하며 참회와 감사수행으로 업장은 소멸되고 소원은 이뤄지는 환희로운 벅찬 감동의 처음 공개되는 기도비법.

※철야정진 동참불자의 도움으로 소리산 16만평의 청정도량에 수행교육과 용맹정진 할 수 있는 법당 88평, 요사 80평 건축불사가 마무리 되어 갑니다.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38)771-7745 (011)9088-7745